

제 27 장 바울 그 마지막 활동상

1.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가교역할: 주후 46년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의 회의 마지막 무렵에,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 (갈 2:10)한다고 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교회의 일반성도들이 이 회의 이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증거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신중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의 마지막까지 그의 이방 선교지를 철저하게 잘 조직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1) 에게 지역에서의 사역이 거의 다 완수되었다는 깨달음과, (2) 스페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배를 탈 것과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할 그의 계획과 함께, (3) 로마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갈 결심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잘 조직화되어있던 이방교회들에게서 연보를 걷어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연보를 계획한 것은 그의 이방 선교 지역 교회와 모교회간에 교제의 다리를 놓는 데에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보다 이 연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막 끝낸 그의 에게 해 지역 선교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였으며, 지금까지의 그의 선교 활동은 이 ‘열매’를 예루살렘에 갖다 바침으로써 인봉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의 목적을 말할 때에 그는 이방인 신자 그들 자신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여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15:16).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은 이러한 보다 거룩한 제물에 대한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2. 바울의 체포와 심문: 성령의 재촉하심을 받은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야고보와 그의 동료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들의 연보를 기뻐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그들은 바울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초기의 사도적 예루살렘 신조를 너무 완화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또 그들의 선조 대대로 내려온 전통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유대에 퍼진 소문을 몹시 염려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율법 열심당’을 포함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율법을 엄수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는 바울이 성전에서 자신의 경비로 적절한 희생을 치르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던 예루살렘의 네 제자들에게 찬동을 표기하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실인 네 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고귀한 희망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오리라고는 예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아시아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금지 구역에 들

어음으로써 성역을 더럽혔다고 그를 힐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 뜰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으뜸가는 죄였으며, 분노한 군중은 바울을 끌고 바깥 뜰로 나갔으며, 그곳에서 그를 처치하려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안토니아 수비의 군인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총독의 부재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권을 대리하며 수비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천부장이 수석 대표는 이러한 사태 처리에 최선을 기울였다. 며칠 후 대제사장은 바울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대표단을 인솔하였습니다. 그 두 죄란 신성한 성전을 모독한 특별한 죄와, 일반적인 죄로는 나사렛당의 장본인이며 또 온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완전히 염병과 같은 해독을 끼치며 공공 질서를 깨뜨리는 파괴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준엄하게 정죄하는 재판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사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마케도나와 아가야에서 그만한 재정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뇌물을 쓰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만큼 그 연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일한 가운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서 종교적인 대화만을 나누었으며, 이 대화는 사실상 바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습니다.

주후 59년 벨릭스가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사법권의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서 그 소송 사건을 해결하려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심문하겠다고 말하면서 산헤드린을 그의 협의회로 삼겠다는 뜻을 비쳤을 때, 바울은 이 무경험자인 새로운 총독이 바울 자신을 그의 원수들의 세력에 넘겨줄까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행 25:10 이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방장관은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를 첨가하여 피고인과 함께 로마로 보내야 했으며, 경험이 없는 베스도는 이 기록을 초안하는 데 있어서 아그립바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그립바는 바울을 직접 보기 원하였고, 또 그의 말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베스도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고소와는 달리,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3. 로마에서의 재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바울의 주요 동기는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위 아래 로마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모험을 겪으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이사 자신이 반드시 이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는 그의 재위 초기에, 소송 사건들을 자기 자신이 몸소 판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그 후 8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 사건들을 일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후 62년 초 이전에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사건은 아마 네로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판결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사건이 유예되어 부대 밖에 구류당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 업무의 폭주로 인함이었습니다. 재판결과로 바울은 석방된 것으로 추측되며, AD62년 재판에서 처형되지 않았고, AD64년 대화재 사건 이후 로마에서의 대박해로 인해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바울의 재판 그 이후: 바울은 재판 이후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으며, 유대를 향해서 향해

했던 것으로 그의 목회서신들에서 추정됩니다.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2세기 말 로마에서 편찬된 신약성경의 무라토리 목록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 즉 바울이 로마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바울이 어떻게 동서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믿음으로 귀한 명성을 얻고, 전 세계에 의를 가르쳤으며, 서쪽 끝까지 복음 활동을 하였는가를 고린도 교회에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교회와 서로 교제가 있었는데 로마에서 가르친 이래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순교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네로 치하의 로마에서 순교 당하였다는 것은 오리겐의 창세기 주석 제3권에서 분명히 증명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네로 통치의 하반기 어느 시기에 바울이 심문당하고 재판을 받아 로마에서 처형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